

썸썸방 황피해일



친구들과 많이 놀았다.

이름 송지유

방학에는 내가 수영장에 가자고 했지만 비싸서 포기했다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찾다가 썸썸방을 찾아냈다. 썸썸방은 2군데가 생각이 났다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금강래저타운이 났다고 생각 났다. 알짜 알아나도 할말이 없어서 게임을 하며 약속시간을 기다렸다. 12시30분에 약속했다. 시간이 점점다가 오고 있었다.

엄마는 전주가고 아빠는 일해서 걸어갈 뻔했지만 할아버지께서 데려다준다고 하셨다. 다행이 차를 타고 갔다. 친구들을 만나 모두 썸썸방으로 향해 약70도 방에 들어갔다. 너무나 조용하고 지루해 핸드폰을 했다. 핸드폰을 하다가 5분도 못 버티고 나왔다.4명에서 갔는데 나와 친구1명이 함께 나왔다.2명이 하도 안 나와 문을 막으려 뛰어 갔다. 문에 다가가는 순간 친구가 문을 열었다. 타이밍이 굿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와서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을 먹었다. 나와 친구1명은 짜파게티를 먹고 친구 2명은 신라면 진라면을 먹었다. 다 먹고 놀이방에 갔다. 애들이 많이 들어가도 달까 생각 했지만 무시하고 들어갔다. 아이들 사이에서 놀기가 창피했지만 그냥 놀았다. 썸썸방에서 만 놀기는 심심해서 목욕탕에 갔다. 큰바가지가 있어서 들고 노천탕으로 갔다.

사람들이 들어와 너무 창피해 바가지를 들고 달랐다. 힘들어서 다시 썸썸방에 가서 누워있고 싶었다. 썸썸방으로 뛰었다. 뛰다가 아버지께서 일어나 시끄럽다고 혼을 냈다. 그래서 걸었다. 그러고는 1번째 아버지가 없는 데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아버지가 뭐라 했다. 창피해서 조용히 있다가 심심해서 나갔다. 벌써6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아빠가 데려라왔다.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샤브샤브를 먹었다.